

근대일식주택에서 접객공간 및 부엌공간의 개조

Remodeling of Parlor and Kitchen of Japanese house built in the 1900's

이지숙* / Rhee, Ji-Sook

유옥순** / Ryou, Ok-Soon

Abstract

Many Japanese came to Kunsan and Many Japanese houses have built there in 1900's. Korean have lived in the house according to Japanese's leaving after restoration of independence. This study is purposed to prescribe remodeling of the house by case study, through interview, survey and taking photographs. There are lots of changes of the location, facility and interior material of the parlor, kitchen and entrance door of the houses. After Korean dwelling at the house, all of the houses have changed according to difference of life style between two peoples, change of every aspect of life, economic factor and so on. And the one of the principal cause of these remodeling is a facility development.

키워드 : 군산시, 일본주택, 생활양식, 개조

Keywords : Kunsan City, Japanese house, Life style, Remodeling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군산은 개항과 더불어 조계지¹⁾가 형성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개항초기에는 한옥을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일식주택을 건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식주택들은 일식기와의 사용과 일식 현관의 설치, 벽장(오시래), 다다미방, 일본식 정원 등을 도입하였다. 금동, 명산동, 영화동, 월명동, 방미동 일대에는 1920-1930년대 사이에 지어진 많은 숫자의 일식주택들이 현존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일식주택들은 일반적인 주거용도와 점포를 겸한 주거가 있고, 중규모 이상의 단독주택과 여러 채의 주택이 연속되어 하나의 동으로 지어진 나가야(長屋)로 구분된다.

이러한 주택들은 비교적 원형이 잘 유지된 것도 있지만 해방 후 한국인이 거주하면서 주택의 내부 혹은 외부를 개조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혹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습성과 생활양식이 다른 한국인이 거주하면서 군산시에 현존하는 일식주택이 해방 후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조되었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향후 두 민족간의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른 주택디자인과의 관계 및 얼마 남지 않은 근대주택 중 일식주택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정회원, 국립 군산대학교 주거 및 실내계획전공 전임강사

** 정회원, 국립 군산대학교 주거 및 실내계획전공 교수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주택의 외형상 지붕, 차양, 창호, 현관 등으로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일식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으로써 행정구역상 군산시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사례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현지 실측조사와 면접조사 및 보완조사 등 3차의 방문을 통하여 개조시기 및 내용을 조사하고, 현재의 주택상태를 사진촬영 및 실측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조사대상이 된 일식주택의 신축당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 결과만을 조사 파악한 후 초기의 상태를 유추하여 개조원인 및 내용을 다루는 것에 한정한다.

대상공간은 일식주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접객공간과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부엌공간으로 한다.

2. 일식주택의 형성배경

개항이후 시작된 외래건축의 영향은 전북지역의 근대건축전개과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1894년 청일전쟁에 승리하면서 일본인들은 군대주둔을 배경으로 토지점유를 시작하였고,

1)조계지란 개항장에 설치된 외국인 전용주거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자국민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치외 법권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 군산에서의 거주지(공동조계)는 1899년 6월 2일 한국외무대신과 일본, 프랑스, 영국, 청국, 미국, 러시아, 독일의 각국 대표간에 조인된 각국조계장정(各國租界章程)에 의해 설정되었다.

토지소유의 합법화에 따라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주택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군산은 1899년 5월 1일 형식상 한국정부의 속령에 의해 개항되었다. 군산은 지금의 영화동, 장미동, 중앙로 1가 일대를 중심으로 총 면적 572,000㎡의 조계지가 설정되고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벌어졌다. 군산항이 개항되었던 1899년 당시, 군산은 총170호에 인구 588명에 불과하였다. 그 중 한국인은 150호에 511명, 일본인인은 20호에 77명이었다. 그 후 11년이 지난 1910년 일본인 호수가 904호, 한국인896호, 중국인 25호로 일본인 호수가 한국인보다 많았고, 인구에 있어서도 일본인 3,448명, 한국인 3,830명, 중국인 95명으로 군산은 완전히 일본인 지배에 들어간 셈이었다.²⁾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개항초기에는 한옥을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일식주택을 건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식주택은 일식기와의 사용과 일식 현관의 설치, 벽장(오시레), 다미방, 일본식 정원 등을 도입하였다. 시가지는 일본인 상류층이 주로 거주하는 구 거류지 일대와 조선인 중·하류층이 주로 거주하는 군산역 일대로 분리되어 확장되어 갔다. 도로의 형태도 구 거류지는 8-16m의 폭에 상하수도를 설치하고 가로수를 심은 격자형 도로형태를 갖추고 있는 반면, 군산역전 일대는 불규칙한 도로형태를 띠고 있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전북 근대건축은 전환기를 맞이한다. 해방직후 1945년 8월 18일 일제에 의해 지어진 신사와 봉안소 등이 일제히 파괴되고 소각되었고 11월 30일에는 군산 경마장 폭발사건으로 건물 177동이 전파되었다. 한국전쟁개전 직후부터 1950년 9월 28일 미국이 전주에 입성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전북에서 612동 관공서 건물과 320개교의 학교 건물이 파손되었고 1960년대 이후 시작된 경제개발과 증개축 및 신축을 통하여 현재까지 많은 건축물들이 철거되고 변형되었다. 군산의 금동, 명산동, 영화동, 월명동, 방미동 일대에는 1920-1930년대 사이에 지어진 많은 숫자의 일식주택들이 현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식주택들이 해방이후 한국정부에 귀속되어 한국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의 주생활에 맞게 증축되거나 변형되었으며, 음식점 등으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어 그 전체적인 원형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존하는 일식주택의 지붕, 벽체, 창호, 차양 등에 남아있는 일식 건축수법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당시 일식주택의 특성과 가로 경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일식주택들은 일반적인 주거용도와 점호를 겸한 경우가 있고, 주거용도의 주택은 중규모 이상의 단독주택과 여러 채의 주택이 연속되어 하나의 동으로 지어진 나가야(長屋)로 구분된다. 신흥동은 일제시기 군산시대 유지들이 거주하던 부유층 거주지역으로 중규모 이상의 일식 단독주택들이 남아있다. 나가야 형식의 주택은 목조에 외벽은 목재 비늘판벽으로 마감하거나 회

벽을 바르기도 하였다. 이들 주택은 현재 외관상 원래의 구조체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내부공간이 변형되었고, 부대시설 등이 증개축되어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³⁾

3. 대상주택의 개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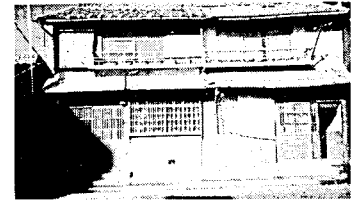
총 조사주택은 39사례이고, 그 중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7사례를 대상으로 현관 및 집객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조사대상주택의 위치 및 사례수

위치	사례수	위치	사례수
월명동	21	명산동	2
신흥동	7	신창동	2
금동	3	평화동	1
둔율동	1		
계			37



a) 상류주택



b) 서민주택

<그림 1>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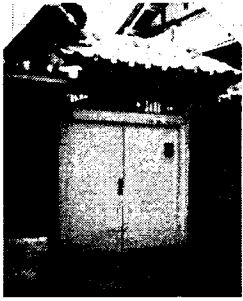
대상주택 중 2층 주택은 8사례이고, 현재의 거주자가 이사 온 시기는 1930년대 1사례, 1940년대 1사례, 1950년대 4사례, 1960년대 3사례, 1970년대 3사례, 1980년대 8사례, 1990년대 8사례이고 무응답 9사례로 나타났고, 개조행위가 없었던 주택은 한 사례도 없었으며, 현 거주자가 이사 오기 전부터 개조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1. 대문 및 현관

일식주택 중 서민주택은 현관이 곧 대문의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 살게 된 한국인은 주택 밖에서 현관을 통해 직접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대문을 새로 만든 사례가 있었다.(그림 2의 d) 한편, 조사 주택 중 상류주택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과 바로 옆에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었다.

2)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전라북도, 2004.04, pp.32~39.

3)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전라북도, 2004.04, pp.39~40.



a) 상류주택의 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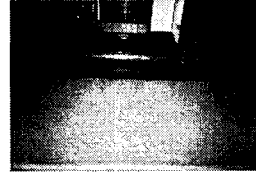
b) 상류주택의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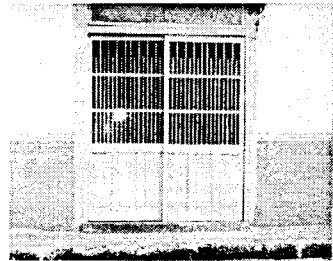
a) 기름보일러



b) 다다미위의 비닐장판



c) 바닥개조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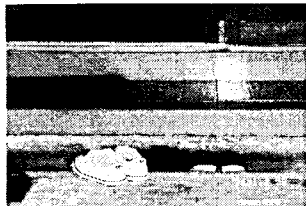
c) 서민주택의 대문



d) 대문을 새로 만든 예

<그림 2> 대문 및 현관

현관에는 마루 밑에 설치된 신발장이 있는데, 현재 이것만 신발장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총 조사사례 중 9사례이고 기존의 신발장을 없애버린 사례도 3사례였다. 새 신발장이 설치된 가구가 22사례이고 새 신발장과 기존의 신발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례는 1사례가 나타났다. 기존의 신발장은 수납량이 적어서, 새 신발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신발장

다다미 방은 37사례 중 36사례에서 개조되어 보일러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같은 주택 안에서도 다다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나(1사례), 다다미 위에 비닐장판을 깔은 사례(그림4의 b), 다다미 위에 카펫을 덮은 사례가 있었다. 복도에는 마루널 위에 장판을 덮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그림 4> 다다미 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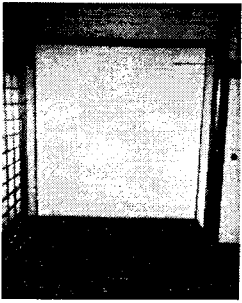
3.2. 접객공간

전체적으로 보면, 도꼬노마가 갖고 있는 접객공간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는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쌓아 놓는 수납공간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안방 자개장을 놓은 사례(2사례), 진축을 놓아 장식한 사례가 1사례가 있었거, 침대를 놓고 사용하는 사례(1사례)가 있었으며, 간이 옷걸이에 옷을 수납한 사례(1사례)가 있었다. 도꼬노마를 비워두거나(3사례), 부엌으로 바뀐 사례(1사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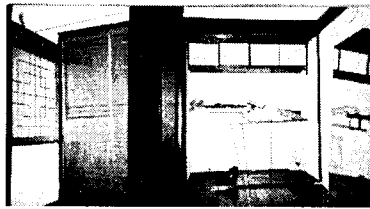
입식 주택의 접객공간인 도꼬노마는 상류주택이었던 경우 그 형태를 유지(그림5의 a)(그림5의 b)하거나 장식공간(그림5의 c)을 사용되고 있지만 서민주택에서는 수납공간(그림5의 d)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꼬노마에 문을 달지 않고 물건을 수납하고 있어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으며, 이를 커튼으로 가린 사례(그림5의 d)도 나타났다. 도꼬노마가 있는 공간은 안방이나 기타 방으로 사용되는 많았고, 주로 수납공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인에게 도꼬노마의 상징성은 수용되지 않았고,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부엌공간

한편 부엌공간의 변화를 보면, 입식 부엌으로 바뀐 것은 15사례이고(그림6의 a), 입식 작업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가스태이블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사례(9사례, 그림6의 b)가 나타났다. 도방과 부엌사이의 바닥 차이를 없앤 사례(4사례), 바닥에 장판을 깔아서 신발을 벗고 이용할 수 있는 부엌마타(12사례)이 나타났다. 이는 설비의 발달과 근대화에 따른 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개조행위가 적극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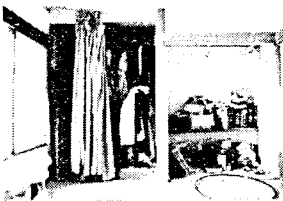
a) 사례



b) 사례



c)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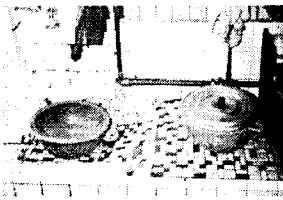


d) 사례

<그림 5> 도꼬노마



a) 사례



b) 사례

<그림 6> 부엌공간

4. 결과 및 논의

한국인이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일식주택들에 거주하면서 일식주택에서 나타난 개조된 내용을 집객공간과 부엌공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집밖에서 집안으로 대문 없이 현관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사계절용 신

발이 필요한 한국인에게 현관 마루 밑 신발장은 수납공간이 작아서 새 신발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났다. 다다미는 모두 개조되어 기름 보일러나 연탄 보일러를 설치한 주택이 많았는데, 추위 때문에 개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다다미가 그대로 방치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도꼬노마는 여러 가지 물품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장식물품을 놓아서 장식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서 집객공간에서 도꼬노마가 갖는 상징성을 전혀 수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부엌공간의 경우 설비의 발달과 근대화에 따른 생활의 변화로 인한 개조행위가 나타나서 입식 부엌설비가 설치된 사례가 나타났다.

생활양식의 차이와 근대화에 따른 생활의 변화, 경제적 요인 등으로 주택 내 공간적 변화가 이루어져서 현관, 바닥, 부엌이 변형되었고, 다다미방은 모두 개조되어 본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설비의 변화에 의한 것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군산시의 문화유적, 군산대 박물관, 1995.
2. 군산개항전사, 군산시, 1934.
3. 군산문화9호, 군산 문화원, 1995.
4. 군산역사이야기, 김중규, 나인기획, 2001.
5. 군산사랑, 김중규, 신아출판사, 1996.
6. 군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전라북도, 2004.04.